
너의 유니버스

작성 민경선(내서중학교 교사)

※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중고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너의 유니버스
조규미 글 | 이로우 그림

■ **주제어:** #시간여행자 #블랙홀 #마지막 편지 #멋진_어른 #나의_유니버스 #세계관

■ **분류:** 문학 > 한국문학 > 청소년 소설

■ **독고독락 시리즈:** 청소년 독자를 위한 짧은 소설 시리즈로, 단숨에 읽을 수 있는 흥미로운 글과 텍스트 없이도 내러티브가 느껴지는 일러스트, 작가의 낭독 영상이 한 권에 담겨 있습니다.

도서 소개

부모님이 짠 스케줄에 따라 밤낮으로 공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평범한 한국 청소년' 지훈. 지훈은 자칭 시간 여행자인 같은 반 아이 '람'과 가까워진다. 미래에서 왔다느니, 새로 생긴 쇼핑몰에서 언젠가 대형 참사가 일어난다느니……. 황당무계한 말을 다 믿은 건 아니지만, 경쟁이나 입시에서 한 발짝 물러선 듯한 람과 함께 있다 보면 현실의 무게를 조금은 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람이 떠난 뒤, 람이 했던 말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기 시작한다.

활동의 의도

람과의 만남 이후 조금씩 달라지는 지훈의 변화를 글을 읽은 학생들 삶으로 가져오고자 합니다. 작지만 확실한 자신만의 취향을 담은 공간을 가진 람을 만나고, 람의 유니버스를 보는 환상적인 경험을 한 후, 차츰 변화를 겪는 지훈. 매일매일 학교와 학원을 영혼 없이 오가며 당장 눈앞의 할 일에만 싸여 정작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뭘까?'라는 고민조차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나의 유니버스'를 그려 볼 계기를 열어 주는 것을 궁극적인 의도로 하여 활동들을 엮어 보았습니다.

지훈은 학업을 강요하는 부모님과 갈등하고, 람은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과거로 시간 여행을 왔습니다. 두 인물을 통해 학생들이 '나와 가장 가까운 세상'인 가족에 대해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고민하고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독서 계획

단계	활동 안내
생각 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가 시간 여행자라면?· 표지를 보고 질문 만들기
생각 펼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감 가는 내용이나 표현 찾기· 등장인물의 심정에 공감하기· 그림으로 작품의 내용 연결 짓기· 등장인물(람)의 상황(선택의 이유) 파악하기· 등장인물(람)이 들려줄 이야기 상상하기· 등장인물(지훈)의 변화 파악 & 상상하기
생각 더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지 쓰기(제시된 조건 중 선택하기)· 나의 유니버스 꾸미기· 친구들과 서로의 유니버스 공유하기(패들렛 활용)

생각 열기

1. '시간 여행자'가 되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느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가요?
그 이유도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 언제로?

· 그 이유는?

2. 표지를 보고 생각나는 질문을 모두 적어 봅시다. 되도록 많이 적어 봅시다. 친구는 어떤 질문을 적었는지 이야기 나누어 보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질문이 있다면 추가해 봅시다.

〈나의 질문〉

예) 표지의 인물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예) 표지의 인물은 왜 거꾸로 그려져 있을까?

1.

2.

3.

4.

5.

〈친구의 질문〉

1.
2.
3.
4.
5.

선생님께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여과 없이 모두 적어 보도록 하세요. 정답이 없는 질문이어도 좋습니다. 작품의 내용을 궁금하게 할 질문이면 된다고 분위기를 이끌어 주세요.

생각 펼치기

1. 가장 공감 가는 내용이나 표현을 찾아봅시다. 그 이유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예)

· 24쪽: 공부라는 녀석은 나를 때려눕히고 유유히 내 세상에서 사라졌다. 여전히 나는 출구가 없는 구멍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 이유: 나와 공부의 관계를 잘 표현한 것 같다. 특히, '출구가 없는 구멍'이라는 표현은 정말 공감된다.

· 쪽:

- 이유:

· 쪽:

- 이유:

2. 아래 내용을 통해, 지훈이가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지훈이의 입장이 되어 이야기해 봅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마는 매번 학원 앞으로 데리러 왔다. 하지만 나의 증세가 심해지면서 나는 혼자 다니겠다고 선언했다. 그 증세란 게, 말하자면 답답증 같은 것이었다. 엄마랑 같이 있으면 그 공간 어딘가에 구멍이 생겨 거기로 산소가 막 빠져나가는 것처럼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나의 유니버스』 본문 17쪽)

“왜? 학원 다녀 주면 됐잖아? 엄마 소원대로 다니잖아?”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입술 양 끝에 힘이 들어갔다. 엄마가 원하는 위치에 나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데, 서로가 이미 알고 있는데도 엄마는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애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엄마 닳아서 그런 걸 어찌라고?”

엄마의 눈동자에 불이 붙는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내가 살려면, 내가 숨 쉬려면 엄마를 이 공간에서 몰아내야만 하니까, 약한 곳을 찔렀으니 이제 내 방에서 나가겠지.

엄마는 아무 말도 않고 나를 뚫어져라 쳐다본다. 나는 보이지 않는 불길에 휩싸인 것처럼 손끝 발끝이, 아니 온몸이 뜨겁게 느껴진다. 그렇게 쳐다보던 엄마가 입을 앙다문 채 돌아선다.(22~23쪽)

3. 램이 과거로 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친구들과 함께 정리해 봅시다.

(예)

램은 어머니가 마지막 자신의 아버지의 편지를 받지 못할까 봐 번지지 않는 펜으로 다시 편지를 써야 한다고 알려 줬다.

선생님께 혹시 줄거리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덧붙여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이끌어 주세요.

4. 람은 자신이 살던 세상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는지 상상해 봅시다.

선생님께 람은 과거로 와서 자신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할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옵니다. 어린 어머니의 기억 속에 있는 아버지(람의 할아버지)의 모습을 어떻게 전해 줄지 상상해 보도록 하세요.

5. 람이 떠난 후 지훈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도 덧붙여 봅시다.

(예)

- 내일은 집에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향이 날아오든 매가 날아오든 버텨 보는 수밖에 없다. 웬지 그렇게 무섭지만도 않았다. 예전 같으면 겁이 나서 안절부절못했을 텐데…….(52쪽)
- 그러든 말든 나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분명한 것은 엄마도, 아빠도 조금은 내려놓은 것 같다는 거였다.(54쪽)
- 지훈도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조금씩 그 방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 같다.
- 학원을 그만두고, 세상 공부를 하러 다닌다.

선생님께 지훈에게 생긴 변화를 본문에서 찾아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해도 좋고, 작품의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상해 보도록 안내하세요.

2. 지훈은 램의 공간(방)에서 램의 유니버스를 보는 환상적인 경험을 합니다. 램의 방은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 포스터로 가득합니다. 램처럼 자신이 추구하는 유니버스를 보여 줄 수 있는 문학 작품이나 영화, 인물을 찾아서, 그 내용과 이유를 소개하는 네 컷의 카드 뉴스를 만들어 봅시다.

(예)

- 책: 『페인트』 아이가 부모를 선택하는 사회
- 영화: 〈해리 포터〉 마법과 판타지 세계

3. 2번 활동의 결과물을 패들릿에 적어 공유해 봅시다. 친구의 결과물에 반응(좋아요 또는 별점)을 표시하거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 봅시다.